

주인공이며 주인이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스가라-

스가라 9:9-10, 누가복음 19:28-40

정윤돈 목사님

오늘은 아버지주일이다. 말씀의 내용도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스가라서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을 배웠던 것은 교회에서보다는 부모님에게서였던 것 같다. 주일 아침에 나를 기도하면서 깨워주셨는데,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 그 덕분에 잠을 잤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았지만, 내 가슴에 손을 얹어놓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분이 이상했다. (웃음) 그러면서 포럼을 많이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포럼해 주셨다. 감사할 것, 성취된 것을 작은 것이라도 포럼하셨는데 그게 내 삶이 되었다. 목사님을 비판하신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 항상 교회를 도우려고 하시고, 심지어 남의 교회도 도우셨다. 남의 교회 십자가를 달아드리기도 했다. 어느 기도원을 가 봤는데, 피아노에 내 이름이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 내 이름으로 어머니가 헌금을 하신 것이다. 여러분,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시기 바란다. 아버님은 이복 사립이신데, 1년에 딱 한 번 기도하신다. 1월 1일에, “하나님, 1년 동안 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을 하지 않으신다. 어머니보다 믿음이 더 좋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원수를 갚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었다. “왜 그러세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좋아.”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하게 전달된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교아원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다 교아들이었다. 처음에는 많이 다투고 싸웠는데, 어느 날 알게 되었다. ‘내가 부모님이 있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구나.’ 나중에 교아들과 대화를 해 봤는데, 너희 소원이 무엇이나 했더니, “전도사님, 저는 제 생일을 알고 싶어요.” “저는 제 성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이렇게 자랐던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자기 생에 처음으로 자기 피붙이가 생긴 것이다. 여러분, 성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아들 중에 원망하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 아니냐.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다. 그것 주신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야 한다. 부모님이 너희를 버렸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다 있었을 거야. 그것을 계속 원망만 하고 있으면 인생을 망치게 돼. 너희가 잘 공부하고 성공해서 부모님을 찾아서 오히려 모시도록 해라.” 교아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안 가겠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데, 출소하시기 전에 자기가 돈을 다 벌어서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것이다. 그런 슬픔을 안고 사는 아이들이었다. 그랬던 친구가, 대학을 무사히 잘 졸업하고, 지금은 압구정에서 미용실을 하면서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삶에는 본질이 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가정의 본질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델이다. 그 환경에 맞도록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수부대에서 민주적으로, 의논해서 뭘 하면 되겠는가? 특수부대에서는 명령대로 해야 한다. 사지에 처한다 해도 가라고 하면 가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 가서 ‘명령만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하면 되겠는가? 의논하고 회의해야 한다. 국회당락이 아니다. 군인의 본질은 지도자 중 좋아보이는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다. 이유 없이 부대에 배치받아서 충성하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을 키워내는 것인데, 만약 그 본질을 놓치고 교장을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행복해야만 된다. 직원을 위하게 되면 그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게 본질이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다른 본질이 있으면 갱신하고 변화시키고 바뀌어야 한다. 중요한 날에, 중요한 본질을 찾으시기 바란다.

스가라는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한 인물이다. 그런데 스가라서는 읽어보면 내용이 어렵다. 환상과 비유가 나온다. 요한계시록의 내용 중 100구절 정도가 스가라서에서 나온다.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 스가라서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근본적으로 전달하고 본질적인 것을 전달하려고 하기 위해서였다. 학개서의 메시지는 하드웨어를 말한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져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으니, 건축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때 동시에 활동한 스가라는,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나 하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 본질은, 아주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고 제1자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그것이 성전의 본질이다.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전을 위한 성전이 아니다. 본질을 위한 것이다.

1.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스가라 선지자의 환상과 설명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1)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공이시며 주인이시다. 우리 누님들이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나서 씨웠다. 큰누님은 A가 주인공이라고 하고, 작은 누님은 B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씨웠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확실하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 마음대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뜻,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의 회사의 주인을 바꿔라. 가정의 주인을 바꿔라.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님께 모두 맡겨라. 일이 고민이 되는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님께 맡기면 내가 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2) 그리스도는 성경 속 모든 제사 제도, 절기 제도의 주인공이시다.

① 예를 들면, 번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원죄가 사해진다는 상징이다.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잡으면서도 본질을 몰랐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기껏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면서도 본질을 몰랐다.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된 것이다. 화목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인간관계도 회복된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한다. 내 자존심, 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회복되지 않는다. 자기 주장이 계속 되니까 싸운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것이다. 신앙생활을 왜 못 누리는가. 아직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불평하는가. 이제까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제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감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도 풀리게 되어 있다.

② 유월절은 어린양의 피를 바를 때 제앙, 저주, 죽음이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그게 본질이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본질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본질이다. 이때 우리의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영생의 복도 얻게 된다. 의미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실 때, 참된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선진국의 조건을 거의 갖춘 몇 안 되는 나라다. 딱 하나 모자란 것이 인간성이라고 한다. (웃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이 나라가 진정한 복지 선진국가, 복음의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예수가 주인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방법이다. 여러분 하나님나라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면, 후대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되고,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될 때 이 나라의 주인이 바뀌게 될 것이다. 수장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사실을 몰랐던 유대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와 절기를 율법주의로 변질시켜 버렸다. 절기와 제사는 모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죽였다. 이스라엘의 실수였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과 성전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이 주인인 줄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며 머라이시다.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세상의 화약고가 된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다 살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정치는 자기 당만을 위하는 것이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종이 되어서 섬기는 곳이다. 교회는 투표로 결정하는 곳 아니다. 성경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내가 왕이지만 종과 같이 되어 섬기는 곳이다. 겸손히 배려하는 곳이다. 다 왕이며, 다 주인이며, 다 종이다. 싸우거나 주장하거나 갈라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 되는 것이다. 복음으로 완전히 제철화되고 본질을 찾아가시기 바란다. 생명을 살려야 한다. 전체를 살려야 한다. 예수님은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하셨지 않다. 이것 잘못이다, 저것 잘못이다 하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나. 교회는 그런 기준이 없다. 커트라인이 없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죄인도 의인도 초신자도 몇 대째 믿는 자도 누구나 올 수 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 이것을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건축에만 심혈을 기울였더니 이스라엘은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우리나라, 민족과 세계의 주인공이시며 참된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스가라서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49번 나온다. 오늘 본문에도 화평을 전하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살롬’은 그냥 별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이겼다. 그 승리에서 나오는 평화를 말한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우리도 이기도록 천사를 보내서 도우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이기게 되어 있다.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살롬을 얻게 되는 것이다.

2.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야 하는가?

(1) 구원의 문제는 종교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① 종교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원죄 문제, 마귀 귀신 문제, 운명 사주팔자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②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는데 율법으로 들으면

유대인처럼 된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할 때는 겸손하게 해야 한다. 강단 말씀을 평가하고 논문 쓰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실천하라는 것이다. 설교는 강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레마를 찾아내시기 바란다. 이 시간 여기에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설교다. 어떤 설교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한 시간 설교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 속에서 각자가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게 강단 메시지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내가 오늘 붙잡으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그게 강단 메시지의 본질이다.

③ 열심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이다.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열심을 가지면 얼마나 열심일 수 있겠는가.

④ 신념, 이념, 철학, 지식을 가지고는 영적 문제,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⑤ 경전을 외워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중요한 것은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 머리가 깨졌는데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사단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어릴 때 보던 만화를 보면, 동굴 속에 마왕이 있다.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그 속에서 마왕의 목소리가 나온다. 간헐있으면서 부하들을 움직여서 문제를 일으킨다.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다.

② 그래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한다.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한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사단의 음모를 폭로하고 있다. 그 체계를 알려주고 있다.

③ 완전히 결박되는 날은 지구 종말이다.

④ 그러나 그때까지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방해한다. 미혹의 영, 거짓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을 가지고 신자를 방해하고 있다. 처음부터 사단은 가정을 공격했다. 부부와의 관계를 분열시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켰다. 이것 해결하는 것이 본질이다.

⑤ 지금도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⑥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다가온다. 한 번 나쁜 것을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다. 담배, 술, 도박 같은 것을 끊기가 어렵다. 도박을 하면 몸 속에 있는 쾌락 회로가 자극된다.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 쾌락 회로를 건드리니까, 도박 자체가 행복한 것이다. 이 중독에 의한 쾌락은 그러나 가짜 쾌락이다. 결국 너를 파괴한다. 모든 것을 앗아간다. 그게 선악과다.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주신, 성령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오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다. 예배할 때 오는 행복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능가할 만큼 누리지기를 바란다. 어떤 마약환자가 단번에 마약을 끊었는데, 예배시간에 영적인 행복을 맞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적인 행복을 가지게 되었다. 마약을 원래 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을 체험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⑦ 사단은 지금도 연합, 절멸,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다주고 있다.

⑧ 마음을 종교로 깨끗하게 하면, 빈 집이 된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더 데려온다.

⑨ 사단은 성경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을 제일 방해한다.

⑩ 확신을 가지고 대적해야 한다. 확신이 없으면 이 방해에 당한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마귀가 방해한다. 놀랄 때는 마귀가 한 시간 더 일찍 깨워주는데 주일 아침에는 못 일어나게 한다. 술 마시러 가는 것, 도박하러 가는 것은 너무 즐거운데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힘들다. 이 악한 체질이 변화되어야 한다. 짜증내고 힘들고 갈등이 있고 너무 어려운데, 주님 앞에 나오면 바로 해결되는 체험을 해야 한다. 그게 성령충만이다. 하나님은 이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3. 그렇다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1)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스가랴 1:3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라.” 우리로 하여금 참 행복을 누리게 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애타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절대 가지 않겠다 하는 흑암의 울무에서 벗어나라.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데, 왜 진작 안 누리고 있었을까, 왜 부담인 줄 알았을까, 이 이상 안 들어가려고 계산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깨달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러도 아깝지 않고 행복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2) 스가랴 3:4에 말씀한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성전을 회복해야 할 대표적 인물이다. 스가랴는 선지자, 여호수아는 제사장, 스룹바벨은 왕이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게 된다. 그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어떻게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는 복음으로 새 옷을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3) 스가랴 4:6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4) 징계하지 않으시고 은혜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스가랴 8:15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심지어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전회회복이 되게 하셔서 더 큰 응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5) 다민족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스가랴 8:23에, “그 날에는.” 스가랴서와 소전지서에는 그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우리에게, 이 나라에 그 날이 올 줄 믿는다.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성취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수 아이돌그룹이 해외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그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난리다. (웃음) 우리 한국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같은 분들과 비교하면 키도 작고 코도 낮고 못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하는 메시지를 듣고 앉아서 적고 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사소한 문제에 사로잡혀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게 울무다. 울무를 끊어버리고 대로로 나가고, 대양으로 나가고, 세계복음화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란다.

(6) 그 날에는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스가랴 9:16에,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 같이 여호와와 땅에 빛나리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의 축복을 능가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7)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로 만드셨지만 나중에는 다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스템프(stump), 그루터기, 램프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스가랴 10:9에, “내가 그들을 흠으려니와,” 이게 흠어진 자, 숨겨둔 자, 디아스포라다.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그 포로되어서 간 흠어진 자들이 살아남아서 자녀들, 즉 램프들을 데리고 돌아온다. 함께 돌아온다. 이게 세계램프대회(WRC)다. “일산에 모이리라.” (웃음)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이런 모든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두 가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1)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성령인도, 성령충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핵심은 예수가 주인 되시는 것이다. 그러면 뭘 따질 게 있겠는가. 그러면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를 왕관의 보석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된다. 믿고 가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두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이 되어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마귀와 싸우면서 가는 것이다. 어떤 장애인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 저를 왜 장애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하셨다는 것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응답을 받고 지금은 지역의 장애인 인권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내게 부족한 부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란다.

(2) 현저에서 삶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의 21가지 본질이다. 성경적 전도운동 20가지 전략이다. 7가지 서밋 전략이다. 9가지 배려다. 모든 분야에서 위, 아래, 옆을 보고 깊이 높이 넓이를 보는 것이다. 일을 진행할 때에는 논쟁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끝까지 가야 한다. 대부분 조금 하다가 그만둬 버린다. 끝까지 소통하고 대화해서 가야 한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의 주인공은 목목사님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포용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왜 안 하느냐고 하면 안 된다. 끝까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 한국교회, 민족을 개혁하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도록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야 되겠다. 5가지 기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치유받으면서 집중을 누리면서 성령인도 따라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모든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 바란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권한을 위임하셨다. 그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으시기 바란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참된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너무 크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을 끝까지 완성하도록 5력을 허락하시며, 만민의 축복을 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